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춘 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풍자’로 희화화된 현대인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강미혜

# ‘풍자’로 희화화된 현대인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이 춘 옥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강미혜

# 인 준 서

강미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Uniform game」展 (2011年 11月)에 전시되었던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적 전개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예술가에 의해 만들어진 예술작품은 온전히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사회, 문화적 배경의 모든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는 총체물이다. 왜냐하면 예술가는 자신이 속한 시대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이렇게 탄생된 작품은 예술가가 처한 현실을 여지없이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술작품은 역사를 증언하는 산증인으로서, 이것은 곧 예술이 가진 힘이자 사회에서 예술가의 역할과 책임으로 그 의미가 확장 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은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몸소 느꼈던 불안, 우울, 소외 등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범한 일상의 일들이 계기가 되어 그것을 극복하려는 탈출구로써 본인을 회화화하기 시작하였다. 스스로를 회화화하며 시작된 풍자가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 물질 문명 속 현대인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현대인들에게 거울을 비춤으로써 그 속에 감춰진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수많은 예술가들은 비판적 태도를 일관하며 현실을 풍자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왔다. 그래서 풍자는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사회와 소통하는 유일한 연결 고리이자 이러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일종의 탈출구로써 그 역할을 하였다. 본인에게도 물론 풍자는 심리적 위안을 가져다주고 사회와 소통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때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본인에게 익숙해진 또 하나의 표현상의 법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을 통하여 본인이 풍자라는 표현방식을 취하게 된 근원을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전개 과정에 따라 찾아가서 이를 통하여 풍자표현의 당위성을 스스로에게 정립할 기회를 가지고, 또한 앞으로 작업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기 위해 본 논문 제 1장에서는 본인이 사회의 관찰자로서 현대사회의 불안과 위기를 언급하며 피터브뤼겔과 오노레 도미에가 처했던 각 시대적 배경과 그들이 통렬히 비난했던 풍자의 대상, 목적, 그리고 표현 기법 등을 작품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 풍자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고 또한 변모하여 왔는지를 알아보고 있다. 또 제 2장에서는 본인의 일상에서 시작된 작품의 소재가 사회로 확장하게 된 과정을 초기 작업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풍자표현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을 살펴보고 있으며, 제 3장에서는 신문의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재구성하는 작품의 조형적 전개과정과 이미지의 왜곡, 변형을 통하여 풍자를 극대화 시키는 형식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모순과 병폐가 만연하는 현대사회 속 그 안에 내재된 현대인들의 욕망을 희화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자가 단순히 시대를 반영하는 의미를 넘어서 인간 본질을 향한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고 나약한 인간에 대한 사랑, 결국 휴머니즘의 세계로 향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 서론 .....	1
II . 본론 .....	3
1. 사회와 예술 .....	3
1) 현대인의 위기 .....	3
2) 풍자의 이론적 고찰 .....	5
3) 시대반영으로써 풍자미술 .....	8
2. 작품의 내용적 전개 .....	14
1) 풍자를 통한 소통, 이해 그리고 공존 .....	14
2) 자기 반영으로써 풍자 .....	21
3. 작품의 조형적 연구 .....	23
1) 차용을 통한 이미지 재구성 .....	23
2) 왜곡, 과장을 통한 이미지 희화화 .....	28
4. 작품 분석 .....	30
III . 결론 .....	39

참고도판

참고문헌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1] 자화상, print on OHP-film, 17x10cm, 2007
- [작품2] 그들만의 세상, 각 collage, pencil, acrylic on paper, 19x27cm, 2007
- [작품3]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pencil, acrylic on paper, 39.4x109cm, 2007
- [작품4] 비커 쟁탈전, collage, gouache on newspaper, 22x32cm, 2011
- [작품5] 위대한 순간, oil on canvas, 112.1x162.1cm, 2011
- [작품6] 스트레칭, gouache on printed paper, 59.0x98cm, 2011
- [작품7] 꿈의 차, gouache on printed paper, 55.5x76cm, 2011
- [작품8] No cut story, oil on printed canvas, 112.1x162cm, 2011
- [작품9]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 oil on canvas, 90.0x116.7cm, 2011
- [작품10] 기이한 옥수수人들, collage, gouache on newspaper, 47x32cm, 2011
- [작품11] 날고 싶어서, collage, pencil, gouache on printed paper, 49x75cm, 2011

## 참고 도판 목차

- [도판1] 농부의 결혼식(Peasant Wedding), oil on oak, 114x164cm, 1568
- [도판2] 바벨탑(The Tower of Babel), oil on oak, 114x155cm, 1563
- [도판3] 죽음의 승리(Triumph of Death), oil on panel, 117x162cm, 1562
- [도판4] 삼등열차(The Third-Class Wagon), oil on canvas, 65.4x90.2cm, 1863~65
- [도판5] 가르강튀아(Gargantua), lithography, 30.5x21.4cm, 1831
- [도판6] 두 명의 변호사(Two lawyers), oil on panel, 26x34cm, 1855~57
- [도판7] 신문 보도사진 , 조선일보
- [도판8] 인터넷 보도사진, [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
- [도판9] 앰블러스(Ambulance Disaster), silkscreen ink on linen, 302.26 x 203.2cm, 1963

# I. 서론

“스스로 완전히 타인이었던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타인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가 내 집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다.”<sup>1)</sup>라고 에리히 프롬은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과의 공존을 위해선 상대방에 대해 배려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다르다’라는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화로 인한 물질문명의 발달은 개인을 우선시했고 타인을 철저히 외면했으며, 그로써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 속 인간은 폐쇄된 가상공간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잔인한 방식으로 자신을 확대한다. 본인은 급변하는 시대를 겪는 현대사회 구성원으로써 때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홀로 서 있는 무기력해진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곤 생각에 빠진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동시대적 사회 현상과 그 속의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을 풍자의 형식으로 표현한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사회 속 온갖 부조리와 모순이 만연하는 지금, 그 속에 가려진 인간의 야만성, 지나친 욕심을 익살스러운 코미디로 풍자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한 일침과 동시에 희망을 건네고자 한다.

과거의 수많은 작가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이 시대의 많은 작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풍자의 방식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맞서서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주요 관심사는 바로 '인간'이다.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사회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비춰진 모습

---

1) 라이너 폰크, 『에리히 프롬과 현대성』, 게르트 마이어 역, 영남 카디널, 2003, p.345

이 곧 나의 모습이며, 그들의 문제가 곧 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본인을 희화화 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풍자는 이제는 사회를 냉철히 바라보는 관찰자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 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형태를 왜곡, 과장함으로써 이미지를 극대화 시키고 신문에서 보도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의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현실 사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현대인들에게 내재된 불안, 공포, 두려움 등 내면의 심리를 표출하는 것이자 일그러진 우리들의 현재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 Ⅱ. 본 론

### 1. 사회와 예술

#### 1) 현대인의 위기

우리는 단 한 번의 검색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일명 멀티태스킹 이라고 불리는), 마치 기계처럼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빠르고 많은 정보와 지식의 공유는 사회 집단 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의 도구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정보에 둘러싸여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시시각각 쏟아지는 방대한 양의 정보들로 우리의 눈과 귀는 무감각 해졌고, 그 결과 우리는 보다 큰 자극만을 쫓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사이 스마트 폰의 보급과 소셜 네트워크(sns)의 활성화는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소통의 영역을 확장 시켰지만, 정작 옆 사람과의 소통을 단절시키며 개인을 철저히 고립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현대 사회에서 두드러지는 인간소외 현상으로 산업사회 이후 인간은 기계와 기술 그리고 사회조직으로부터 소외되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킨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불안의 요소는 내재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편리해 질수록 그것에 대한 폐단은 어김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화 혁명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는 계층 간의 격차를 생기게 했고,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개인주의는 인간성 상실과 같은 사회 문제

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넘쳐나는 과잉의 시대이다. 과잉생산, 과잉가동, 과잉 커뮤니케이션이 초래하는 문제는 과다에 따른 소진, 피로, 질식 등 현대인들의 신경성 폭력 현상으로 이어진다.<sup>2)</sup>

이러한 현상으로 말미암아 사회는 우리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 연이은 자살소식, 더욱 흉측해지고 잔인해지는 범죄들로 인해 현실세계는 마치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가상의 세계와 같다. 더군다나 보고 싶지도, 듣고 싶지 않아도 접할 수밖에 없는 정보 과잉 현상은 우리들을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한다. 이로써 우리의 감정은 무뎌지고, 감성을 건드리는 자극이 아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자극만을 위해 쫓아갈 뿐이다.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인간성 상실, 인간 소외 등의 문제를 떠안은 채 분열의 과정을 거치면서, 군중 속의 고독한 인간으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현실을 체감한 본인은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한 예술가로서의 역할을 스스로에게 되물곤 한다. 지난 수많은 예술가들과 현재의 많은 예술가들도 사회현상에 대해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 시각이 비판적이든 우호적이든 제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해왔다. 이것은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이자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출구로 볼 수 있다. 본인은 웃음과 해학이라는 풍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림으로써 이 시대의 위기를 알리는 동시에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지금은 풍자의 시대라고 할 만큼 도처에는 풍자, 패러디물이 넘쳐난다. 흔히 풍자가 사회제도나 세력에 의해 억압당할 때, 그래서 시기적으로 암울할 때 더욱 그 기량을 발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시대가 불안이 만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

2)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 pp.18~19, 2012

## 2) 풍자의 이론적 고찰

### ① 풍자의 개념

최근에는 각종 드라마나 음악, 영화에서 사회를 비꼬는 소재가 자주 등장하고, 인터넷 방송, 시사 코메디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현상을 풍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공존하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이념 아래 일방적인 인신공격이나, 주목을 끌기위한 표면적인 자극은 풍자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예술의 영역 까지 두루 쓰이는 풍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해학, 아이러니, 패러디등과 혼동되어 쓰이는 풍자를 구별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립된 하나의 표현양식으로써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풍자는 기본적으로 남의 결점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상에 대한 조소나 비꼼의 태도를 가리킨다. 주로 공격 대상은 '인간'이지만 사회의 부조리, 불합리 등과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에 대한 모순을 비난한다. 이렇듯 풍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현실과 이상에 대한 불협화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보다 나은 세계로 향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풍자는 해학과 혼동되어 사용되지만, '해학'은 비판적인 태도가 풍자보다 덜하고 포용의 자세가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구전문학이나 판소리와 같은 전통 극에서 잘 드러난다. 거기에서는 서민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는 양반계층을 조롱하고 익살스럽게 희화화하며

하층민들의 애환과 한을 해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억압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층민들의 염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학'이라는 방식은 양반계층의 악덕과 실수와 모순 등을 조롱하면서도 동시에 감싸 안는 포용의 자세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학의 정신은 본인이 추구하는 '풍자'의 궁극적인 의도와 상통하고 또 앞으로 살펴볼 피터 브뢰겔, 오노레 도미에와 같은 많은 풍속 화가들이 지향했던 휴머니즘 정신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해학의 표현방식은 엄밀히 말하자면 '풍자'와 차이는 있지만 풍자 속에 해학성을 담을 수 있고, 해학 속에 풍자성을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구별 없이 쓰이기도 한다.

풍자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 즉 상황에 대한 내용적인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아이러니는 형식적인 측면에 접근한 일종의 수사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과 실제 사실 사이의 괴리를 형성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조하는데,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런 해학과는 달리 냉소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에 패러디는 익살, 풍자, 해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작의 표현이나 문구를 작품에 차용하는 형식으로 단순히 모방차원이 아니라, 원작과 작품모두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표절과 구분된다. 또한 미술의 영역에서는 단순히 원작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심에 찬 태도로 원작을 재구성하고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sup>3)</sup>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어 왔다.<sup>4)</sup> 보통 일상에서도 패러디는 풍자와 같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특

---

3) 팝 미술가들이 기존의 이미지들을 차용할 때, 이미지들을 하나의 맥락에서 떼어내 다른 맥락에 위치시킨다. 그리하여 '재맥락화 (recontextualization)' 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미지의 의미는 그것의 다른 이미지들과 나란히 배열하여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바뀔 수 있다. 존 워커, 『매스 미디어와 미술』, 장선영 역, 시각과 언어, 1998, p.57

4) 린다 허천, 『패러디 이론』, 김상구 윤여복 역, 서울:문예출판사, 1998, p.57

히 요즘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는 패러디가 넘쳐난다. 이것은 디지털 복제를 통해 원본을 쉽게 선택하고 조작할 수 있는 환경 때문 일 것이다. 일상에서 부터 예술의 영역까지 진정한 패러디의 역할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깨달음 과 동시에 열림의 가능성을 만들며, 삶에 대한 통찰을 일깨운다. 하지만 재미를 위한 극단적인 패러디, 풍자의 형태의 비꼼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정치적으로 역이용되는 등, 단발성으로 끝나기 쉽다. 그래서 본인은 풍자의 형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비판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자기철학과 예술가로써 사회적 책임감이 수반 되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 풍자와 혼동되어 쓰이는 해학, 아이러니, 패러디등 풍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풍자가 미술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자.

## ② 풍자의 역할과 기능

풍자를 통해 얻는 웃음과 희열감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이로써 심신의 안정과 심리적 치유를 가져다준다. 이러한 풍자의 기능은 개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예술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풍자는 단순히 대상을 조롱하고 비꼬는 순간의 감정만이 아니라 비판적 태도를 수반하는 것, 즉 사회적, 도덕적으로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현실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관객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며 이로써 올바른 자각을 일깨워주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이끌어주는 기능을 한다.

과거로부터 수많은 예술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작품을 통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입장을 표명해왔다. 미술 역시 사회, 정치, 문화 등의 현상에 대해 반응하고, 또 비판적 태도로 풍자하며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러한 풍자의 표출 방식은 현실을 보고 웃음 짓도록 만들게 하고 사회, 정치, 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신분의 차이, 성별과 관계없이 일체감을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과거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등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 체계를 가져다준다. 이것은 그만큼 미술이 현실이라는 세계와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이고, 소통하는 도구이자 현실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물론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예술가란 자기 고유의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예술가의 역할이자 태도이다. 본인 또한 본인만의 철학으로 이 시대의 불안을 얘기하고 있으며 모순과 병폐가 만연하는 사회,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인간의 욕망을 풍자를 통해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 3) 시대반영으로써 풍자미술

피터 브뢰겔과 오노레 도미에가 활동했던 유럽의 16세기와 19세기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사회가 급변하던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그들은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에 맞서서 권력층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에게 눈을 돌려 암울했던 현실 그대로의 삶을 드러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풍자는 단순히 현실을 면밀히 반영하는 기록적인 의미를 넘어서, 인간 본질을 향한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고 나약한 인간에 대한 사랑, 휴머니즘의 세계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그들이 처했던 각 시대적 배경과 그들이 비난했던 풍자의 대상과 궁극적인 의도, 그리고 표현 기법 등 작품을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술사에서 풍자가 어떻게 다뤄졌고, 또한 어떻게 현실을 반영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자.

### -피터 브뤼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전에는 이름도 없는 노동자였던 미술가들이 하나의 주체적 존재로서, 삶에 대해 사유하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사회의 위기와 모순이 가장 잘 드러난 시대에 미술가들은 보다 비판적 입장을 취하며, 그들만의 주제와 표현기법을 통해 당시 사회를 비판하였다. 그 중 네덜란드 16세기 플랑드르화가 피터 브뤼겔(Pieter Bruegel the Elder : 1525 ~ 1569)은 자연과 농민에 대한 현실적 묘사와 권력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으로 이후 리얼리즘의 선조가 되었다.

그가 살았던 16세기 네덜란드의 상황은 중세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는 근세의 여명기로서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 극심한 격동기였다.<sup>5)</sup> 스페인의 지배하에 있었던 네덜란드는 프로테스탄트<sup>6)</sup> 운동의 일환인 칼뱅주의가 유입되면서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스페인 함스부르크 왕가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강력한 중앙 집권 정치를 위해 종교개혁의 바람은 엄하게 다스렸고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 억압에 대한 불만을 가진 귀족들과 추위와 허기에 시달리는 농민들은 네덜란드의 독립을 위해 오랫동안 투쟁을 하였다. 이러한 지배국 스페인에 대한 반발은 수도권의 성당과 성화를 파괴하는 등의 과격한 운동으로 나타나는데, 결국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대한 정치적 독립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시민

5) 백기수, 『브뤼겔,』 서문당, 1982, p.95

6) 프로테스탄트 운동은 당시의 루터, 칼뱅등에 의한 종교 개혁의 결과로 기존의 로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분파를 얘기한다.

계급 중심의 사회로 전환하게 된다.

브뢰겔의 작품은 이러한 중세의 봉건적 사회에서 근대로 이행되는 전환기에 당대의 사회상을 면밀히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의 작품에는 인간, 즉 억압받는 민중의 현실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도판1] 르네상스 이전에는 일상을 주제로 하거나 왕과 귀족이 아닌 농민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설사 그렇다 해도 조롱의 대상인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브뢰겔은 농민, 하층민의 삶을 표면적으로만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고, 그 속에 감춰진 인간의 욕망을 풍자하는 등 그 시대의 화가들과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했다.

[도판2] 는 종교적인 배경이 뒷받침되어 있는 작품으로 바벨탑은 구약성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벽돌로 지은 높은 탑으로 나와 있다. 인류가 노아의 대홍수 뒤에 바빌로니아 땅에 벽돌을 가지고 마을과 탑을 세워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려 하자 이것을 본 하느님은 인류의 언어를 혼란시키고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즉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함은 하느님에 대한 도전으로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뜻하고, 바벨탑이라는 거대한 구조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정치권력은 결국 사람들을 일치시키기보다는 분열시켜 간다는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담겨있다. 작품 속 바벨탑의 한쪽 부분은 무너져있고, 아래쪽에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등 건물 붕괴 위기가 곳곳에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당시 벌어지고 있던 종교 사회적 갈등을 표현하는 것이며, 또한 자본주의의 악폐를 상징하는 것으로 세속적인 사회에 내재된 인간의 탐욕과 사리사욕을 들춰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산업화, 정보화로 인해 급속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며 현대 사회의 병폐들은 현대판 바벨탑의 의미로 설명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질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브뢰겔이 처했던 시대에 대한 비판 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작품으로 [도판3]은 처참했던 시대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불타는 나무와 연기가 피어오르는 황폐한 배경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해골의 모습을 하고 있는 흉측한 무리들과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들 쪽으로 밀려드는 군중도 보인다. 그는 농민들의 일상, 현실을 담담히 그려내기도 했지만 이렇게 상상력을 토대로 등장인물들을 왜곡하고 과장하며 비극적인 전쟁의 참상을 알렸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요소와 풍자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형태의 왜곡과 과장의 표현은 본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표현양상과 유사한 부분이다. 하지만 브뢰겔은 인간은 결국 성별, 지위, 경제적 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뜻을 나타내며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브뢰겔은 권력의 지배와 전쟁, 그리고 종교적 독단을 부정하고, 인간의 본질에 초점을 두며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성립하게 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 -오노레 도미에

오노레 도미에는(Honre Daumire 1808-1879)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격동기였던 19세기 프랑스의 역사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작품을 통해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그가 활동한 시기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기술혁신에 의한 생산력 증가로 인해 근대 자본주의가 확립되어 갔다. 하지만 이로써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인권유린 사태 그리고 임금과 주거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세는 매우 불안정했다. 그러는 동안 프랑스 샤를 10세기 복고 왕정, 7월

혁명과 루이필리프 입헌 왕정, 2월 혁명,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와 제 2공화정, 보불 전쟁과 파리 코뮌에 이은 제 3공화정이라는 정치적 요동을 겪게 된다.<sup>7)</sup>

도미에는 브뤼겔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빈민층에 눈을 돌리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도판4] 는 삼등 열차를 타고 다니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낡은 기차에 지친 몸을 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한 애환과 고달픔을 나타냈으며, 강렬하게 대비되는 명암표현은 기차 안의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를 강조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 속에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담겨져 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일상을 담아냄으로써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동시에 연민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노동자와 빈민층의 모습뿐 아니라 부르주아 정부의 부패와 비리, 그리고 사법부의 위선을 통렬하게 비난하며 풍자하였다. [도판5] 은 라카리카튀르에 실린 석판화로 도미에의 정치 풍자화 중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부르주아 위주의 정책만 고수하고 서민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루이 필립 왕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루이 필립을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가르강튀아'로 묘사하며, 서민들이 모은 재산을 가로채고 밑으로는 훈장과 서

---

7) 프랑스 왕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선거권을 축소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1830년 7월 혁명을 일으켜 새 왕을 추대한다. 이 혁명을 '7월 혁명'이라 부르고, 이 때 왕위에 오른 이가 '루이필리프'이다. 루이필리프는 왕족의 신분이지만 혁명의 이념을 지지하고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공언하며 언론 출판과 산업 활동의 자유를 크게 보장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1848년 2월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어, 루이필리프 왕정을 끌어내리는데 이것이 '2월 혁명'이다. 2월 혁명 이후 선포된 새로운 공화국에서는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스스로 황제(나폴레옹 3세)로 즉위한다. 나폴레옹 3세는 내부적으로는 민중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프랑스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외국과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1871년 프로이센(현 독일)과의 전쟁에 패해 물러난다. 나폴레옹 3세가 물러난 이후 프랑스 급진 좌파 세력이 봉기해 파리 시청을 점령하고 자치정부 '파리 코뮌'을 결성한다. 하지만 파리 코뮌은 정부에 진압돼 약 3만 명이 처형당하는 처참한 결과로 끝났다. 파리 코뮌을 진압하고 출범한 '제3공화정'에 가서야 프랑스는 극좌와 극우 사이를 오가지 않고 민주공화정으로 정착한다.

파리코뮌, 프랑스혁명연구: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편집부 역, 태백, 1988, pp.39~44

류들을 모조리 배설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권력에 대한 비판은 법조계를 신랄하게 풍자함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는데, 그는 어릴 때 법률 집행관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면서 당시의 판사, 변호사, 검찰관 등의 온갖 비리와 횡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법조인들을 경멸했다. 그래서 작업을 통하여 지배층의 오만함을 폭로하고 풍자하였는데, 그 대표작이 '밀담을 나누는 두 명의 변호사'이다. [도판6]에서 변호사들은 나르시즘에 빠진 듯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과장된 몸짓을 하고 있다. 도미에의 사회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 모순된 현실과,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맞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처했던 사회적 상황을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량 복제가 가능한 석판화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19세기 중엽에 그 효용성이 널리 알려진 석판화는 대도시 곳곳에 석판화 가게가 문을 열 정도로 대중적인 예술 기법이 되었다.<sup>8)</sup> 석판화 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미술가들은 일반 시민들이 즐겨보는 지면을 통하여 한 시대를 풍자하고 증언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브뢰겔과 도미에는 각 시대마다 표현 기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 모두 사회 격동기를 거쳤다는 점과 권력에 맞서 풍자라는 언어로 대항했다는 점, 그리고 소외된 계층에 눈을 돌려 현실 그대로의 삶을 비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로써 풍자가 이전의 미술사에서 등장하게 된 근원 역시 불안정한 현실 아래 저항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금 현 시대에 두루 쓰이는 풍자의 양상들과 그 의도와 맥락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금부터는 본인의 작품을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다면 밀히 분석함으로써, 풍자의 형식을 취하게 된 근원을 찾아 갈 것이다. 이

---

8) 정윤수, 『문화예술 100과 사전』, 숨비 소리, 2007, p.154

것은 곧 브뢰겔과 도미에가 처했던 암울했던 시대에 고민했던 흔적을 조금이나마 이해 할 수 있는 길일 것이며, 이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들과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 2. 작품의 내용적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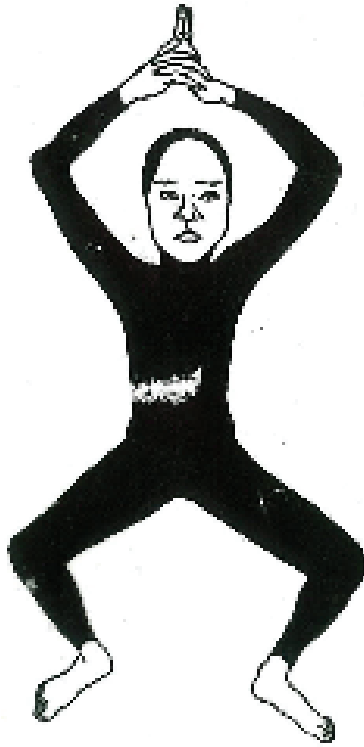
### 1) 풍자를 통한 소통, 이해 그리고 공존

#### - 군중 속의 고독

본인의 작품에는 대중매체에서 보도되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분야의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보던 슈퍼 히어로가 입는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과장된 표정과 몸짓으로 작품 속에서 희화화되고 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을 감싸는 전신 타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머리카락, 유방, 성기 등 인간의 신체를 최소한으로 노출시켜 인간 본연적 차이, 즉 성별, 인종, 민족 등의 구별을 없애버리기 위함이다. 그럼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본질만이 드러날 뿐이다. 또한 의복, 장신구 등 사회적인 위치나 계급을 나타내는 것은 본질을 흐뜨리는 껍데기의 일부라고 간주하고 모두 제거하였다.<sup>9)</sup>

인간을 일종의 캐릭터화하며 작업한 것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업 초반에는 본인이 주인공, 주변인으로 등장, 타인을 대신해서 모든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항상 검정색 타이즈를 착용하는데, 검정은 권력을 상징하는 색으로써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으로써 캔버스 안에서는 권력을 행사하며 모두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 처음에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없애버렸지만, 후반 작업에는 획일화된 대중으로 묘사된다.



[작품1] self-portrait, print  
on OHP-film, 17x10cm, 2007

"그들은 오직 그들만의 표정과 몸짓으로 무형의 언어를 내뿜고 있으며, 때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항한다."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 달라진 생활환경 속에서 나의 모습은, 마치 거센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듯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어김없이 몰려드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자유를 떠안았을 때, 그 책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은 점점 커져 갔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온갖 상념을

떨쳐버리고 차라리 자유의지를 포기한 채, 누군가로 부터 조종 받는 단순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가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나의 캐릭터를 만들었고, 스스로를 조종하게 되었다. (작업 노트 中 2007) [작품1]

본인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것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이해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을 작업 속 가상의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그곳에서는 소통과 웃음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종의 자유, 즉 현실로부터의 도피로 볼 수 있다. 에리히 프롬<sup>10)</sup>에 따르면 인간은 과도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그에 따른 무력감, 회의, 고독, 불안 등으로 인간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든다고 한다.<sup>11)</sup> 그래서 자유라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도피하여 새로운 의존과 복종의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캔버스 안에서 그들을 조종함과 동시에 복종하면서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일들을 실현시켰고, 이로써 위안과 희망을 얻게 되었다. [작품2,3]

---

10)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인간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될수록 더욱 고립되어 외로움에 부딪히게 되며, 자유로워진 동시에 고독해졌기 때문에 고독과 소외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생겨, 결국 인간은 자유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고 말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을 자본의 노예로 귀속시키고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으며, 인간관계 또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기계적이고 계산적 관계로 취급하며 사람들을 보다 깊은 고독과 소외의 궁지로 몰아넣었다.” 고 주장했다.

11) 용기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군중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 생기는 고독감이나 고립감, 비웃음이나 경멸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군중 속에 숨어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다.

롤로 메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백상창 역, 문예출판사, 1974, p. 221



[작품2] 그들만의 세상, 각 pencil, acrylic on paper,  
19x27cm, 2007



[작품 3]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collage, pencil, acrylic on paper, 39.4x109cm, 2007

'인간은 모두 다르다.' 라는 명제는 누구나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세상의 중심은 나였고, 지금까지 보고 겪어왔던 경험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상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온전히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많은 경험을 통해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라는 이 "다름<sup>12)</sup>"의 "차이" 를 깨닫고 나서야 그들을 진정 이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내안에서 나와 세상 속 그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작업 노트 中 2011)

#### -세상 밖으로

가치관의 변화는 작업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로써 혼자가 아닌 다양한 인물들이 작품 속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와 색의 타이즈를 입고 개성을 뽐내기 시작하며 양복, 군복, 동물 표피 등 신분의 노출로 또 다른 자아를 드러내는 한편, 한 화면 속에서 서로 어울리며 공존한다. 그들은 점잖은 척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화합을 다지는 듯 하며 뒤에선 딴 생각을 하는 등 흔히 누구나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로 표현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인간의 위선과 모순을 풍자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으

---

#### 12) 같음과 다름

인간은 제 각기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태어났으며, 국가의 고유의 언어체계와 사유방식, 그리고 상이한 생활환경 아래, 인간은 결코 하나로 될 수 없는 다름 즉 개별적 차이를 가지게 된다.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같음'이라고 함은 다른 문화, 다른 삶 속의 인간일지라도, 그들 모두에게는 내재된 동일한 보편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인 다양성과 차별성을 넘어 인간의 고유의 본질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정치, 사회, 경제의 유명인사들 그리고 본인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왔기 때문에 외형뿐 아니라 성격, 습관, 가치관 등이 제각기 다르지만, 그것을 넘어서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보편적 본질로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름 속에 내재된 같음, 다름에 의해 왜곡되어 가려진 같음, 그러한 인간의 하나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며, 그 대상이 사회적으로 칭송 받는 각계 인사들을 빗대어 신랄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관객에게 보다 통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사회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현상들을 경험한 관객들은 직접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는 답답함에서 해방됨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것이다. 이처럼 풍자는 부조리한 상황을 비판하지만 우회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공격적인 적대감은 줄이고, 동시에 울분을 발산 시킬 수 있는 저항의 기술로서 사용된다.<sup>13)</sup>

하지만 풍자는 인간의 사악함과 어리석음을 공격하는 반면에 개량적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덕적이고 사회적이다. 본인 또한 일방적인 비난과 질타가 아닌 풍자를 통해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사회로 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처럼 풍자의 형식은 현실에 대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속성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세계를 재구성 하는 창조적인 역할을 한다.<sup>14)</sup>

작품에는 주로 정치, 경제, 사회면의 저명인사들이 등장하는데, 때론 야유와 조롱 섞인 어투로 그들을 비꼬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곳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이 잘 드러나 있는 곳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잘 감춰져 있기 때문에, 신랄한 비판을 통한 통쾌함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때 ‘욕망’이라고 함은 생존, 생식, 물질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지배, 권력, 경쟁, 승리 등 집단 내에서 보이지 않는 현대인들의 사회적인 욕망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리를 일삼고 권력을 남용하는 탐욕스런 인간을 희화화하고 있으며, 부정부패로 얼룩진 모습은 비단 정치, 경제 집단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회사, 학교등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집단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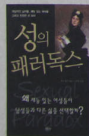
---

13) 베르그송, 『웃음, 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역, 세계사, 1983, p.30

14) 이승하, 『한국 현대시와 풍자의 미학』, 문예출판사, 1997, p.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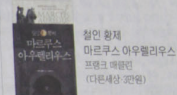
미국의 1세대 여성 시간가자였던 프랜시스 본스턴(1864-1952)이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과학실험에 열중한 여학생들을 찍었다. 여성을 위한 보통교육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다. 송숙여우의 제공



성공한 여성들이 왜 일터를 떠나나?

女, 태어날때부터 다른 걸 원했다

통치자와 사상가의 두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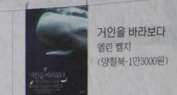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프로그레시브  
(다문세상 20원)

근 현대 정치가가 가장 사랑한 고대인. 로마의 제 18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61-180)의 일생을 고대 사료부터 비록까지 방대한 12권 자료를 종합해 엮은 평전이다. 엘리트, 흉수 같은 자 영예와 번영의 진영. 번민 속에서 로마의 황금기를 공헌한 지배자다. 죽음으로 명파라온 129개르다나아 전쟁을 이끌고 반란을 제압했다.

철학자이자 '명상록' 저자는 아우렐리우스의 다른 얼굴 다윈, 니체, 쇼펜하우어 같은 후대 지식인에게도 영향을 준 스바야라 영혼을 둘러싼 정신세계도 살펴본다. 황제로서의 아우렐리우스와 '사상가'로서의 아우렐리우스를 함께 만난다. 영국의 전기 작가이자 역사가.

사람보다 더 인간적인 고래



거인을 바라보다  
엘렌 황지  
(양철북-1만3000원)

법고의 새끼 수컷은 대마봉이다. 평생 어머니 곁을 맴돈다. 독립하지 않는 지구상 유일한 포유류. 한번에 한 마리만 낳고, 70살 수명에 13살까지 자라는 놀라운 고래는 모습이 지극하다.

고래는 할머니의 역할이 규정된 드문 포유류이기도 하다. 먹이위치를 알려주고, 이동경로를 가르쳐주는 '영양'을 한다. 기문

[작품4] 비커 쟁탈전, collage, gouache on newspaper, 22 x 32cm, 2011

[작품4]는 여야당원들이 국회에서 의결안 문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비커를 쟁탈하는 장면으로 풍자되고 있다. 현란한 색의 타이즈는 현대사회의 화려하고 풍요로움을 뜻하고, 비커는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아등바등 서로를 밀쳐내는 모습은 마치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있을 법한 장면처럼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경험하는 일들을 토대로 사회 속 현대인을 풍자하고 있으며, 잔인하고 가학적인 모습이 아닌 익살스럽고 해학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보다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고, 쉽게 공감하게 된다. 그

리고 본인 또한 작품의 주인공이나 주변인으로 등장, 그들과 동화되어 웃지 못 할 상황 속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이것은 본인을 3인칭 시점에서 관찰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욕망들에 휩싸여 고뇌하는 스스로를 비판하는, 일종의 성찰적 태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풍자의 공격대상이 자신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풍자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대 물질문명 속 현대인을 풍자와 해학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병들어가는 현대인들에게 거울을 비추으로써 물음을 던지고, 그와 동시에 긍정의 힘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더불어 그 속에 감춰진 인간의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면서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추악한 정치의 폭로, 부정, 공격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에 대한 사랑, 관심, 통찰로 향한다.<sup>15)</sup> 군중 속의 고독함에서 탄생한 본인의 캐릭터는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 다양한 인간들과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 그리고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

## 2) 자기 반영으로써 풍자

브뢰겔과 도미에를 비롯한 과거의 수많은 작가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시대의 많은 작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풍자의 방식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맞서서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된 주요 관심사는 바로 '인간'이다.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사회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며, 그들의 문제가 곧 나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쯤에서 본인은 왜, 하필 '풍자'라는 형식을 고집할까? 라는 질

---

15) 박홍규, 『오노레 도미에』, 소나무 출판사, 2000, p.119

문과 마주치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풍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웃음을 유발시키면서,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하지만 풍자를 통한 웃음이 과연 단순히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데서 오는 쾌감인지, 혹은 그저 본인에게 익숙해진 하나의 표현 방식인지, 스스로가 풍자를 고집하는 이유를 보다 자세히 짚고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본인은 여느 미대생들처럼 자화상을 줄곧 그렸다. 그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아주 뻔하고도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본인에게 인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단지 붓으로 그리는 행위만 반복 할 뿐, 형체의 껍데기만 드러날 뿐이었다. 그래서 누드로 그려보고 색으로도 나타내려고도 시도해 봤지만, 결국 갈증은 해소되지 않은 채 답답함만 커져갔다.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 우스꽝스럽게 희화화된 본인의 모습에서 희열과 동시에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인간의 굴레에 둘러 싸여 몸부림치는, 한없이 나약한 자신과 마주했을 때 비로소 가장 나다운 나, 본연의 모습에 가까워 질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본인을 희화화하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치유로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스스로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시작된 풍자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투영된 나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브뢰겔과 도미에를 비롯한 과거 수많은 작가들도 (물론 그 때의 심정을 헤아릴 순 없지만) 아마도 이러한 연유로 풍자를 취하고 고집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추측해 본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풍자의 방식은 본인의 삶 속에 맺힌 다양한 희로애락을 뱉어내는 일종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어둡고 암울한 현실의 문제를 ‘웃음’ 이라는 방식으로 해소시킴으로써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하나의 돌파

구로써 그 역할을 한다. 상황을 비극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희극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들여다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바탕에는 삶의 주체적인 사고와 그것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행동, 즉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그것을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3. 작품의 조형적 전개

#### 1) 차용을 통한 이미지 재구성

현대 미술에서의 차용은 미술사, 광고, 미디어 등에 이미 등장한 형상을 단순히 빌려온다는 개념에서 나아가 그것을 새로운 형상과 합성시키거나 재구성하여 또 다른 작품을 창조하는 제작방법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차용은 의도를 가진 모방이고, 모방의 과정에서 각색을 하여 새롭게 제시하는 것이다.<sup>16)</sup> 또한 대중에게 익숙한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를 차용함으로써 기존의 것을 재해석하여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대중매체에 오르내리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드러냄으로써 작품의 표현영역을 확장, 자신의 사상과 미의식, 현실 문제를 포착하기도 한다.<sup>17)</sup> 본인의 작품 또한 대중에게 익숙한 신문을 차용함으로써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 그로써 현실에 대한 재해석과 동시에 대중매체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물음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문을 회화 공간 속으로 이동시키는 전개 과정은 먼저 신문을 무작위로 수집하고, 그 중에서 본인이 사건 속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해

16) 신정아,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p.27

17) 한혜진, 「대중매체 이미지를 이용한 앤디 워홀의 예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1, p.6

서 선별해 둔다. 이렇게 선택된 이미지들은 작업 방식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신문의 보도 사진만을 이용하여 캔버스에 옮기는 방식이다. [참고 도판7]의 장면은 김황식(왼쪽부터)총리,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진희 삼성회장, 정몽구 현대 기아차회장이 회담에서 건배를 하고 있는 보도사진이다. 이것은 다시 캔버스로 옮겨지는데, [작품5]에서 보면 원본 사진 뒤쪽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뒤바뀌어 있고, 이진희 회장 대신 본인이 화면 안에 들어가 있다. 보도된 사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를 위하며 화합을 다지는 듯하지만, 그림자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욕망과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처럼 신문 보도사진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여러 과정을 통해 재구성된다.



[참고 도판 7] 신문 보도사진



[작품 5] 위대한 순간, oil on canvas, 112.1 x 162.1cm, 2011

또 다른 방식은 신문 매체의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차용, 재결합하는 형태이다. 이때는 신문지를 찢고 태우는 등 이미지를 변형시키고, 다양한 크기로 확대한 다음 다시 캔버스나 종이에 출력하는 과정을 거친다. [작품6]은 감원장과 5대 금융 회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사진으로, 그들이 웃으며 응시하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찢어버리고, 거기에 [도판8]에서 연행되어 가

는 학생들의 보도 사진과 결합시킨다. 그럼으로써 서로의 희비가 교차되며 현실과 실제 사이의 관계를 헤집으며 아이러니함을 유발시킨다.



[제작 과정] printed on paper,  
59.0 x 98cm, 2011

[도판 8] 인터넷 보도사진  
[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



[작품 6] 스트레칭, gouache on printed paper, 59.0x98cm,  
2011

이처럼 본인의 작업은 신문에서 보도되는 다양한 사건, 사고를 사용함으로써 현실 사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미지를 변형시킴으로써 신문의 원본 이미지들의 공간과 내러티브의 일관성을 파괴하고 대중매체의 변질에 대한 의문을 상기시킨다. 또한 대중에게 익숙한 신문은 작가의 현실의식을 바탕으로 재창조된 작품과 만나게 되고, 서로 충돌하면서 애매모호함과 모순을 의도적으로 유발한다. 이로써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던 관객에게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대중매체를 차용하는 것은 미술과 일상, 그리고 대중과의 거리를 보다 한껏 가깝게 하고, 작품의 의미가 관객의 해석에 따라 다양해질수 있다는 점에서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작품이 등장함으로써 매체간의 혼합과 확산을 가져와 장르 간의 벽을 허물어지게 했다.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무수한 이미지들이 대량 복제, 손쉽게 유포되는 현대사회의 문화 사회적 상황을 다양한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는데, 그 중 앤디워홀은 <애플런스 사고>, <재키 시리즈>, <전지의자>등 재난 시리즈의 작품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를 대중매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워홀은 특정한 비행기 사고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가 대중매체에 의해 기록되는 방식, 즉 그의 시대에 재난과 죽음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공유되는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재난과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지 재난과 죽음 사건 자체나 그에 대한 작가의 개별적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다.<sup>18)</sup>

---

18) 『앤디워홀의 세계, Andy warhol』, 서울시립미술관, 2009, p.19



[참고도판9] Ambulance Disaster,  
silkscreen ink on linen, 02.26 x  
203.2cm, 1963

도판9] 은 사고현장에서 돌아오던 앰블런스 두 대가 충돌하는 장면을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한 것이다. 축 늘어진 시체와 무자비하게 파손된 자동차의 끔찍한 사고 현장은 여가와 자유의 상징이던 자동차가 이제는 죽음과 파괴의 도구로 변질되었음을 암시한다. 워홀은 동시대의 사회현상을 무엇보다 잘 담아내는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이용해 60년대 미국사회의 폭력성과 무너진 꿈들을 워홀 자신의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우리 문화에 내재한 관음증에 대해, 그리고 폭력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도록 요구하며, 반복되는 이미지들은 일상 속의 재난과 죽음이라는 일반적인 경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탐구하도 하도록 만든다.<sup>19)</sup>

이로써 워홀은 실제 사건과 대중 매체, 즉 대중 매체가 실제 사건을 제시하는 방식의 간극을 보여주고, 대중 매체가 재난과 죽음을 보여주는 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혹은 미국인들이 그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sup>20)</sup>

19) 같은 책, p.7

20) 『앤디워홀의 위대한 세계』, 동아일보사, 2010, pp.12~13

## 2) 왜곡과 과장을 통한 이미지 희화화(戲畫化)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론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짓지 못하고 군중 속의 고독하고 불확실한 존재로써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규율, 제도, 관념등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여있는 현실 속에 본인은 이러한 것들에 맞서는 인간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왜곡, 과장시킨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억압받고 소외된 인간의 불안한 심리를, 또한 억압하고 군림하려는 인간의 야만성을 폭로하며 나타내고자 한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보면 등장인물의 머리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고, 또 이리저리 휘어있는 등 제각기 기괴하게 변형되어 있다. [작품5]에서 보자면 허창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본인의 머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치인과 기업가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 관계, 즉 정경유착을 풍자한 것으로 그들은 겉으론 대의를 중시하며 국민을 위하는 듯하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에 갈등하고 변민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음이 내키는 방향으로 머리 또한 따라 움직이는 것을 형태를 변형시켜 표현함으로써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인간들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물질에 대한 욕망에 흔들리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7]은 반값 등록금 운동으로 시위를 하던 학생이 경찰에 붙잡혀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학생은 강제로 연행되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신체 일부가 찢겨나가며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신문기사에는 페라리의 조용한 엔진 소리를 자랑하며 광고를 해댄다. 이 순간 절규하는 학생의 모습과 페라리의 조용한 엔진 소리문구가 대립되어 아이러니한 상황 극으로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사회현실과 물질세계의 비극이 서로 충돌하면서, 현실과 이상의 구조적 부조리한 상황을 보다 극대화시키고 그로써 우리는 긴장

감을 가지게 된다.

본인에게 형태를 왜곡시키고 과장하는 표현 방식은 균형과 아름다움은 무시되지만, 주제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내재된 불안, 공포, 두려움 등 내면의 심리를 표출함으로써 일그러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반영한다.



[작품 7] 꿈의 차, gouache on printed paper, 55.5 x 76cm, 2011

#### 4. 작품 분석



[작품 8] No cut story, oil on printed canvas, 112.1 x 162cm, 2011

## [작품8] No cut story

-신문 기사 : 팔레스타인 국가 지위 인정에 반대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에서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회담도중 고개를 돌리고 있다.

우리는 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마주했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포커페이스, 즉 일종의 위장술로 대처해야 할 때가 있다. 포커페이스-위장술이란 상대에게 나의 마음상태를 들키고 싶지 않을 때 애써 감정을 감추고, 겉으로는 본래의 마음과 다른 표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관심이 가는 이성에게 적절한 무관심으로 마음을 숨기고, 정말 비호감인 사람한테마저도 사회생활을 위해선 예의상의 포커 페이스는 필요하다. 그런데 본인은 좋고 싫음의 마음을 감추고 적절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본인은 [작품10] 에서 슈렉 가면을 쓰고 등장하게 되었다.

[작품10] 은 오바마 대통령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회담을 나누고 있는 장면과 국회의원들이 의결안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오버랩 하여 표현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화 도중 기분이 썩 좋지 않는 듯 한 표정으로 심기가 불편한지 딴 곳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신문의 보도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 진실에 가까운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동물은 앞서 말 한 대로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러니깐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모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애써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떨구는 오바마 조차도 진심이 아닌 일종의 위장술로 협상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뒤에서 웅성거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장면들은 포커페이스를 치밀하게 하지 못해서 결국 들켜버리고만 본인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풍자하며 이것은 동시에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복잡 미묘한 마음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보다 비현실적이게 보이기 위해 전체적으로 회색이 가미된 색조로 표현하였다.

제작 방식은 앞에서 설명했던 신문을 차용하는 순서와 동일하며 작품에서 신문을 구기며 찢는 등 변형시키는 이유는 신문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의문을, 원본을 훼손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이 작품에서는 의도적으로 신문의 부분을 태우는데, 흔히 신문에다가 불을 붙이면 순식간에 재로 변한다. 이것은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언론매체의 부당함을 의미하고 본인이 그 순간을 재빠르게 포착함으로써 결국 들켜버린 '찰나'의 순간을 의미한다.



[작품 9]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 oil on canvas, 90.0x116.7cm, 2011

## [작품9] 누구를 위해 좋은 울리나

[작품 9] 는 정체모를 사람들에게 팔다리가 꿈작하지 못한 채 끌려가는 장면을 다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로 묘사하고 있다. 원본 사진에서는 등록금 시위로 경찰들한테 끌려가는 학생을 본인이 대신함으로써, 그 고통의 깊이를 헤아리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의 억압은 외부의 억압이 아닌 본인 스스로부터 오는 중압감에서 비롯된다.

흔히 억압이라고 하면 사회집단 내 권력이나 무력으로 인한 억압이라고 생각되지만 스스로에게서 오는 억압, 예를 들면 불안, 초조, 의욕 상실 등 내부에서 오는 억압도 포함한다. 본인은 나를 가두고 힘들게 하는 요인이 법이나 규율, 타인의 시선 등 외부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함에서 오는 버거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을 본인을 희화화하며 표현하였다.

주인공의 얼굴, 손, 발이 주변보다 밝고 거칠게 표현됨으로써 내재된 불안함과 두려움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찝막하게 왜곡된 인체의 비례는 무서운 분위기를 다소 완화시켜 준다. 그리고 본인의 작품에서는 말, 토끼, 새 등 동물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본인을 구제하러 인간 세상에 내려온 구원의 의미로 상징되고 있다.



## [작품10] 기이한 옥수수수들

-신문기사; 음식물, 태초에 없던 색깔을 입다.

유전자 변형 대신 육종 교배로 개발된 다양한 색깔의 옥수수들. 색깔의 '연금술사'들에 의해 과거엔 상상하지 못했던 '기이한' 색상의 농산물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명박, 유시민등 한국의 정치인들과 빌게이츠, 김정일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저마다形形色색의 타이즈를 입고, 마치 승리라도 한 것처럼 열렬히 환호하며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같이 단순화시켜 간결하게 나타내었고, 신문의 원본 기사(위)와 병치시킴으로써 등장인물을 육종 교배로 개발된 옥수수로 상징하여 표현, 상황을 아이러니하면서도 익살스럽게 그려내고 있다.

제작방식은 신문에 보도된 옥수수사진을 오려낸 후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종이에 배접하고, 거기에 수집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콜라주 기법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작품은 초반의 작업형태로써, 신문이 빛과 공기에 의해 쉽게 변색, 산화되는 습성을 고려해서 이후에는 스캔을 하고 출력하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었다.



[작품 11] 날고 싶어서, collage, pencil, gouache on printed paper, 49x 75cm, 2011

## [작품11] 날고 싶어서

신문기사: A380 만든 에어버스사 차세대 여객기 - 이런 비행기를 타면 정말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유럽의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가 14일 공개한 미래형 여객기의 개념도 에어버스는 여객기의 전방과 천장 옆면을 투명 소재로 만들어 밖이 보이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체 벽의 색은 일사량에 따라 변하게 만들 계획이다. 좌석은 승객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승객은 비행 중에 홀로그래피를 이용한 컴퓨터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게임 프로그램은 승객의 체온으로 구동한다. 승객들은 기내에서 가상 스크린 골프도 즐기고 화상 회의도 할 수 있다. 에어버스는 "새의 뼈 구조를 응용, 동체를 가볍게 만들고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버스는 2050년을 목표로 이 같은 비행기를 개발하고 있다.

위의 신문기사는 미래의 최첨단 비행기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11]에서 보면 비행기가 아닌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다. 투명 소재로 만든 밖이 보이는 최신식의 비행기는 양상한 나뭇가지들로 만들어진 열악한 교육환경과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로써 희비가 엇갈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 인물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김석동 의원, 한명숙 의원, 빈 라덴등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다. 그들은形形色색의 타이즈를 입고 개성을 뽐내는 여유도 있고 마치 하늘에서 평화롭게 떠 있는 듯하다. 이것은 암울하고 비극적일 수 있는 상황을 보다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긍정의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다.

제작 방식은 신문의 사진을 오려낸 다음, 그것을 스캔을 하고, 다시 종이에 확대, 출력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빈민촌 아이들)을 부분적으로 오리고 출력된 종이에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 Ⅲ. 결 론

「‘풍자’로 희화화된 현대인」의 논문을 통해 본인이 그려내는 풍자는 결국 불안한 21세기의 현대사회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인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그러진 현대인들을 표현함으로써 그 속에 투영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곧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산물인 동시에 본인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고, 풍자가 단지 사회를 반영하고 기록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내면의 심리적 치유로써 그리고 자기 반영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풍자의 방식을 고집하는 본인 스스로에게 풍자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또한 이것은 앞으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해야만 하는 이유로 설명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신 타이즈를 입고 우스꽝스럽게 희화화된 인간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된, 혹은 스스로부터 소외를 자처하는 이 시대의 현대인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현실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은 피터 브뢰겔과 오노레 도미에가 그 당시의 현실을 바라봤던 시선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풍자는 불안한 현실 속에 나타나며, 그리고 언제나 그들은 풍자 이전에 '인간'이라는 대상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 물음은 과거에서 이어져 온 것이며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다만 시대가 변하고 매체의 발달에 의해서 그들이 표현했던 방식과 본인이 취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것은 예술 작품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여건을 유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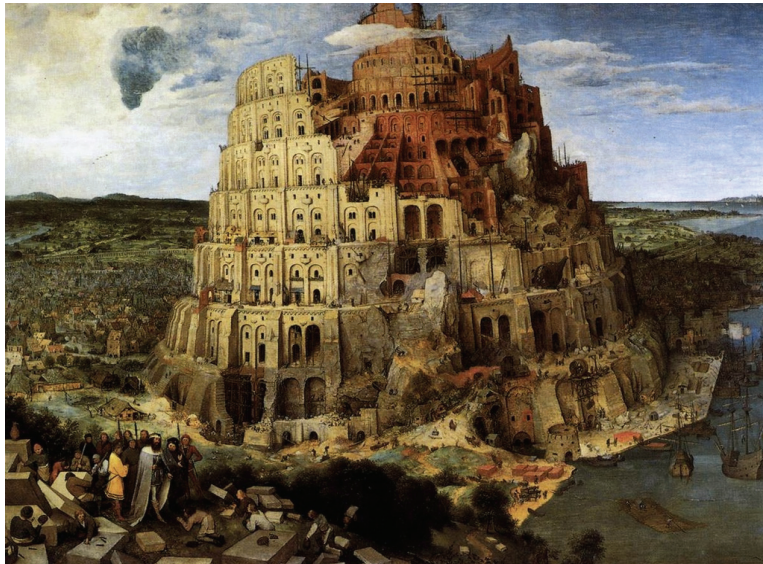
본인을 희화화 하면서 시작된 풍자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세상 속의 ‘나’와 다른 인간과 소통하고 이해, 공존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하지만 지금도 본인은 진정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아마도 본인에게 있어 평생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이자, 삶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인은 이 글을 마치기 전에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잠시 내리고자 한다. 예술이란 삶과 같다. 답도 없는 끝없이 펼쳐진 여행길이다. 괴로움 뒤엔 항상 즐거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깨달음을 준다.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답하며 이 글을 마친다.

## 참고 도판



[도판1] 농부의 결혼식(Peasant Wedding),  
oil on oak, 114x164cm, 1568



[도판2] 바벨탑(The Tower of Babel), oil on oak,  
114x155cm, 1563



[도판3] 죽음의 승리(Triumph of Death),  
oil on panel, 117x162cm, 1562



[도판4] 삼등열차 (The Third-Class Wagon), oil on canvas,  
65.4 x 90.2 cm, 1863~65



[도판5] 가르강튀아(Gargantua), lithography, 30.5x21.4cm, 1831



[도판6] 두 변호사들, oil on panel, 26 x 34 cm, 1855-57

## 참 고 문 헌

- 라이너 폰크, 『에리히 프롬과 현대성』, 게르트 마이어 역, 영남 카디널, 2003,
- 린다 허천, 『패러디 이론』, 김상구 윤여복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8
- 롤로 메이 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백상창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74
- 박홍규, 『오노레 도미에』, 소나무 출판사, 2000,
- 백기수, 『브뢰겔』, 서문당, 1982
- 베르그송, 『웃음, 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시론』, 정연복 역, 세계사, 1992
- 이승하, 『한국 현대시와 풍자의 미학』, 문예출판사, 1997
- 정운수, 『문화예술 100과 사진』, 숨비소리, 2007
- 존 워커, 『매스 미디어와 미술』, 장선영 역, 시각과 언어, 1998
- 파리콤문, 『프랑스 혁명연구: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편집부 역 태백 1988
-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 2012
- 『앤디워홀의 세계, Andy warhol』, 서울 시립미술관, 2010
- 『앤디워홀의 위대한 세계』, 동아일보사, 2009
- 신정아,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에서 나타나는 차용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8
- 한혜진, 「대중매체 이미지를 이용한 앤디 워홀의 예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1

# ABSTRACT

## Research on the Expression of Contemporary People Focusing on the Caricaturization through the Use of Satire

-Focusing on my own artworks-

Kang, Mi Hye

Dept. of Western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 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and formal development process of my work, exhibited in *Uniform Game* in November 2011. Art works are not sole creation of the artists but rather a holistic mixture of all elements of society and cultural back ground of the era. This is because the artist is influenced by the environment of the times in which he is in, and therefore the art works unquestionably reveal the reality faced by the artist. Thus, art works are living evidence of history. This is precisely the power of art, and this power can be expanded in meaning to the role and responsibilities of an artist

within society. With feelings such as anxiety, depression and isolation that any contemporary man would have experienced at least once in the current reality as a momentum, my artworks began to make a caricature of myself as a means to escape those feelings.

The satire that began by making a caricature of me has come to symbolize contemporary man in the ever-changing contemporary material civilization. By reflecting a mirror on to contemporary man who are falling ill without being aware that they are, I try to reveal the hidden essence of humans, throw the question “what are humans?” and ultimately move towards love and sympathy for humans.

From the past, numerous artists have consistently held a critical attitude, satirized reality and actively expressed their social position on the reality. In this way, satire played a role as the only link to communicate with the society in the grim actualities and a kind of escape from these actualities. Satire plays a positive role for me in that it brings psychological consolation and allows communication with society, but sometimes I become confused whether it has become another expression method that I have become accustomed to. Thus, through this study, I trace back the origin in which I came to select satire as an expression method throu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work content and form. By doing so, I establish the appropriateness of satire expression and moreover present new possibilities for the coming work.

In order to do so, in Chapter 1, as an observer of society, I refer to

the anxieties and crises of contemporary society and analyze the historical background faced by Peter Bruegel and Honoré Daumier and the object, purpose and expression method that they criticized sharply through their works and examines how satire reflected and transformed reality according to changes in the era. Moreover in Chapter 2, I examine the ultimate intention and purpose of satire expression by going back to my early works and the process in which works that began in daily life came to be expanded into society, and in Chapter 3, I focus on the formal elements that maximize satire through distortion and modification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images of the reconstituting works by borrowing newspaper images.

This study seeks to satirize the inner desires of contemporary man within contemporary society rampant of contradictions and ills, go beyond these satires as merely reflecting the society and continuously question the essence of humans and moreover the show the process towards love for the weak humans and ultimately towards the world of humanism.